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교	이름	김xx
파견국가	스웨덴	파견도시	Örebro
파견대학	Örebro University	파견기간	2018년 2학기-2019 1학기 (1년)
귀국여부	귀국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외레브로는 스웨덴 중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10만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한국에 비교해서 작은 도시이지만 스웨덴에서 7번째로 큰 도시로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기차, 버스로 약 2시간 30분정도 걸립니다. Örebro University는 설립 20년이 지난 학교로 대체적으로 모든 건물이 크고 깨끗하며 캠퍼스의 규모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조금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학교의 건물들은 비교적 1~3층 건물이 대부분이며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Novahuset, Library는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팀과제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적으로 Library가 가깝고 이빠서 과제를 많이 하러 갔었고 책도 쉽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애용했던 시설은 Gym이었습니다. 1달, 6달, 1년 등 다양한 선택권이 제공되며 저는 1년 회원권을 약 20만원 정도로 등록했습니다. 헬스장은 기본으로 제공되며 실내풋살, 탁구, 배드민턴, 요가, 스피닝, 배구, 줌바, 복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일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과 애용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안에 복유럽식 사우나가 설치되어 있어 운동 후 사우나 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p> <p>대학 주변에는 편의점과 큰 마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나 외레브로 시내까지 버스로 10~15분거리 자전거로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 학생들은 자전거를 애용합니다. 저 또한 학기 초반에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여 2학기 동안 잘 탔었고 마지막 귀국전에 중고로 다시 팔고 왔습니다. 특히 가을 학기에는 날씨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일부러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주변 구경도 하고 산책도 자주 했습니다. 교환학생 가시기 전에 꼭 <b><u>Örebro buy and sell</u></b> 이라는 페이지에 가입하셔서 저렴한 가격에</p>

	<p>자전거 구매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자전거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600SEK-900SEK 정도 합니다. 겨울에는 많이 춥고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자전거보다는 버스 이용 추천합니다. 제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안전상 버스 이용 추천드립니다. 주변 곳곳이 정말 미끄럽고 위험합니다. 버스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편합니다.</p> <p>가장 중요한 시설 "<b>Karen</b>". 활동적이거나 친구들을 쉽게 사귀고 싶으시면 꼭 추천 드립니다. Karen은 대학내에 있는 클럽입니다.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시설 중 하나 입니다. 저는 클럽에서 재밌게 놀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Karen에서는 봉사활동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추천 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시끄러운 분위기, 클럽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금요일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기숙사까지 들려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클럽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같이 노래 떴창하고 재밌게 춤추고 노는 문화가 대부분입니다) 한국 클럽은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평소 학교 분위기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오리엔테이션 기간에는 정말 시끄럽고 바쁘며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갑니다.</p>
2018-2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p> <p><b>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Management</b></p> <p>교환학생 첫 수업이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수업은 아니었고 교수님이 PPT를 올려 주시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읽고 모르는 단어정도 찾아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PPT를 이용하셨고 교제는 친구들과 E-Book 공유해서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시험은 책 1권이 전부 시험 범위였고, 조별과제로 Major Paper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상계열, 글로벌경영 학생이면 전공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 추천합니다.</p> <p><b>Business Administration, Global Marketing</b></p> <p>경상계열, 글로벌경영 학생들에게 전공으로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과목이며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과제, 팀과제, 발표가 많아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적 글로벌 기업을 선정하여 나라마다</p>

마케팅 사례, 성공한 마케팅, 실패한 마케팅을 분석하여 발표도 했으며 과제 양이 상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험은 수업시간에 다룬 PPT, 책을 이용하여 준비한다면 충분히 패스 받을 수 있으며 저는 이 수업을 듣고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쉬운 수업은 아니나 그래도 스스로 기업사례들을 찾으면서 재밌게 팀 과제를 했던 수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Logistics***

이 수업 또한 전공으로 인정받았던 수업 중 하나입니다. 과목 명 그대로 무역학에 관련된 수업이며 시험이 어려워서 2번 시험을 봤습니다. 무역학에 관련된 기초적인 단어와 무역기구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며 한국에서 무역학에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였거나 무역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들으면 쉬운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수업이었습니다. 개인과제, 팀 과제, 발표는 당연히 있으며 지루했던 수업이었습니다.

#### ***Gender Diversity and Organization***

교양과목으로 들었던 수업입니다. 남녀평등에 관련된 수업으로 흥미가 있었던 수업 중 하나입니다. 다른 수업들에 비해 소규모 수업이며 10~20명도 학생들이 수강합니다. 북유럽의 복지, 남녀평등에 관한 내용을 수업에 다루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이론을 배우기도 합니다. 정말 흥미롭게 재미있었던 수업이지만 인문학에 가까운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원문에 단어나 문장의 수준이 어려워서 처음으로 영어 때문에 힘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좋은 점수는 받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올 만큼 좋았던 수업입니다. 개인적으로 남녀평등과 사회복지 등에 관심이 있으시면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영어가 해석은 되나 한국말로도 이해가 안되는 어려운 문장들도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1학기  
수업

**Global Communication**

전공으로 인정받았던 수업 중 하나입니다. 수업은 많이 어렵지는 않았고 책을 읽고 보고서 작성과 팀 단위로 발표가 있었던 수업입니다. 수업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 발표에 있어서도 수월하게 했었고 시험이 10장 정도 분량의 보고서로 대체되는 과목이어서 미리 준비하여 빨리 제출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쉬웠던 과목 중 하나이며 친구들과 즐기면서 들었던 수업입니다.

**Business Administration, Strategic Brand Management**

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했던 수업입니다. 수업은 어렵지 않았으나 시험이 정말 어려웠으며 팀 과제 분량도 많아서 힘들었던 수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중간에 현장학습도 나가 스웨덴 회사를 구경할 수 있었으며 내용적으로는 좋았던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때론 주변 회사 대표님이나 다른 강사들을 초대하여 강의 형식 수업도 진행하였고 수업에 열정적이셨습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모든 것이 다 좋았으며 만족하였으나 역시나 시험은 정말 어려웠고 결국 마지막에 포기한 수업입니다. 하지만 현장학습이나 초청 강의의 질은 정말 좋았고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Social Work,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Societies and Families**

2018년 2학기에 들었던 Gender Diversity and organization과 비슷한 맥락의 수업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을 없었고 팀과제, 개인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시험은 15장 분량의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였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수업입니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교양 수업 중 하나이며 무난했던 수업이었습니다.

**Sport Science, Outdoor Education and Recreation**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입니다.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추천 드립니다. 대부분 수업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며 수업 중 총 3번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수업 내용 자체도 정말 좋았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평상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웠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3번 교수님과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여행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경험해보고 야외에서 침낭으로 잠을 청하며 암벽등반, 말을 타는 경험을 하였으며 스웨덴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산 속에 들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직접 가르치는 경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등록시 개인 부담금 약 3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크로스 컨트리,

	<p>암벽등반, 말타기 등 스웨덴 곳곳을 여행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돈이 아깝거나 후회되는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들었던 모든 친구들이 다 만족한 수업이었고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타면서 내 자신의 한계에도 마주치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추천드리며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수업입니다. 제 주변 모든 친구들이 이 수업을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러워했습니다. 다만 밖에서 침낭만 가지고 잠을 자거나 어떤 여행에서는 화장실이 열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산 속에서 누워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잠들고 친구들과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탔던 그 경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정말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환학생들을 상대로 약 6주 정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교환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신입생이 다 같이 참여하지만 교환학생들은 교환학생들끼리 조를 짜서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합니다. 스웨덴 교환학생에서 무엇이 가장 좋았냐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 정도로 조로 나누어지며 13~15명 교환학생, 3~5 Fadder(학생회 같은 느낌)로 1개의 조가 구성되며 학교 생활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학교 강의실 위치,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법 등 하나하나 자세히 잘 알려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면 하루하루 일정들이 있습니다. 학교 규칙, 시험 규칙 등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주는 설명회가 많고 또한 그룹끼리 같이 밥을 먹거나 액티비티, 디너파티,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활동을 통해 친구들을 사귀어 개인적으로 영화도 보고 자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짧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되 자신의 체력 컨트롤을 잘 해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쯤 몸살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했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에 감기에 심하게 걸려 고생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도 조별 모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참여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꾸준히 참여하고 먼저 다가가면 다들 엄청 좋아하고 쉽게 친구들을 사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친구들은 대부분 수업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친해져야 수업 조별과제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자신의 몸관리는 스스로 잘 하시길 바라며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번 다가가면 다들 좋아하니 노력해야 결과가</p>

	달라집니다.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8월에 도착했을 때 반팔을 입었지만 저녁에는 쌀쌀해 가디건 정도 걸치는 정도였습니다. 9시가 되어야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9월 말까지는 정말 날씨가 좋으며 이때 최대한 여행을 다니시거나 자전거나 주변 산책 추천드립니다. 학교 주변에 특별한 건 없지만 산책하기 좋은 길도 많고 좋은 날씨를 충분히 즐기셔야 합니다. 저는 같은 조 친구들이랑 피크닉도 가고 잔디밭에 누워서 놀기도 했습니다. 10월이 되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해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1월 부터는 정말 해가 짧아지고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지며 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비가 폭우처럼 쏟아진 적은 한번도 없지만 그래도 10~12월 사이에는 자주 내렸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해는 9시에 뜨고 2~3시면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끼리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잠이 들어서 일어나면 하루에 해를 못 보는 날이 있을 정도로 해가 짧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우울하거나 힘들었던 적은 없었지만 12월부터 2월까지의 해가 너무 짧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실내활동을 많이 했으며 방에만 있으면 기분이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공부도 도서관이나 다른 건물에 가서 하였고 체육관에 등록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였습니다. 걱정할 정도로 우울함이 찾아올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날은 일주일동안 날씨가 좋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는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정말 춥지만 Orebro는 중부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폭설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최고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적은 있으며 한국의 겨울보다 조금 더 추운 정도입니다. 3월 말부터 날씨가 점점 다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4월 이후부터 정말 날씨가 좋으며 해도 다시 일어지고 어디를 가지 않아도 학교 안에서 정말 예쁜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을 보는 것을 좋아해 해가 지기 시작하면 항상 밖에 나가거나 기숙사 창문을 통해 노래를 들으면서</p>

	<p>노을을 보곤 했습니다. 외레브로는 정말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4,5,6 월에는 반팔을 입을 정도로 더운 날도 있었지만 완전 여름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긴 팔을 주로 입었습니다.</p>
<p>안전</p>	<p>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제가 1년 동안 느낀 외레브로는 정말 안전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학생이고 운동도 평소에 꾸준히 하였고 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로 저녁 늦게(10~11시) 근처에 있는 마트에 장을 보러 다녔으며 새벽에 30분정도 시내까지 걸어가기도 하였으며 자전거를 타고 새벽 늦게 햄버거집에 다녀오거나 택시도 탄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도 안전에 위협을 받은 적은 없으며 스웨덴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합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심해야 하며 위험한 일을 나서서 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캠퍼스 안에는 종종 security가 돌아다니며 순찰을 돌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 건물 안에서 새벽까지 시험공부를 하거나 밤을 보낸 적이 있으나 이상한 사람을 목격하거나 위협을 느낀 순간은 한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Orebro 도시, 스웨덴을 벗어나서는 정말 스스로 안전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하며 유럽 몇몇 도시는 아직도 인종차별 심하거나 집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인종차별이나 위협을 받은 적은 없지만 제 주변 아시아 친구들은 특정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그리고 스톡홀름에서 한번 인종차별 발언도 들었다고 했습니다.</p>

숙소

학교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보통 학생들은 "Studentagatan"이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1인 1실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 화장실이지만 주방, 냉장고는 8명 정도 공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 첫 주에 같이 사는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 청소, 규칙, 냉장고, 분리수거 관련해서 규칙을 만들어 생활해 나가지만 정말 복불복입니다. 저는 1년동안 생활하면서 기숙사를 2번 옮겼습니다. 첫 기숙사는 'Studentgaten'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생활 규칙을 정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고 냉장고는 물론 주방이 정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제가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 날파리가 싱크대에 날라 다녔고 전기 스토브 주변에는 기름이 튀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렇게 2개월 동안 소통을 하려 노력을 해봤지만 교환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housing officie에 연락하여 기숙사를 옮겼으며 같은 크기의 방 안에 1인 냉장고 1인 전기 스토브가 있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방의 크기는 똑같지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냉장고와 스토브가 있어서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물론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친구들을 마주칠 일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체육관, 클럽, 모임, 개인적 약속 등에 자주 나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 장, 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탁은 공짜이며 예약시스템(1일 1예약 가능, 3시간)입니다. 세탁세제, 섬유유연제를 사서 돌리면 되고 건조기도 다 있습니다. .

저는 2학기 시작하자 마자 "Red House"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에 이사했던 방이 만족스러웠지만 "Red House"라는 곳에 꼭 살아보고 싶었기에 Housing Office에 메일을 보내 양해를 구해보니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레드하우스는 12명의 교환학생 친구들이 펜션 같은 집을 같이 공유하는 곳으로 일반 기숙사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일반 기숙사와는 다르게 화장실, 욕실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12명에서 5개 샤워실, 4개 화장실 공유) 레드 하우스에는 파티가 자주 열리며 친구보다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저녁마다 거실에 모여 영화를 같이 보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며 정말 추천합니다. 다만 파티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주말에 시끄러워 잠을 못 자 불편해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티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기숙사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렌트를 하여 여행도 갔고 학기가 끝나고 친구들 집에 초대받아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거나 화장실 욕실을 공유를 싫어하신 다면 추천하지



	<p>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곤 정말 추천하는 곳입니다. 개인 시간을 중요시 하더라도 혼자 방에서 지내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거나 놀고 싶을 때 거실로 나와서 놀아도 되지만 화장실에 관련해서 예민하신 분은 그냥 1인 기숙사 추천드립니다. 레드하우스는 130명 교환학생들 중에서 겨우 12명만 살 수 있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별레 걱정은 따로 안하고 살았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O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O ) 기타 ( )</p> <p>물가가 비싼 북유럽이라 외식은 정말 가끔 했습니다. 한달에 3~4번 정도는 했습니다. 저는 외식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그 문화를 알려면 꼭 직접 먹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3~4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날들은 직접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캠퍼스 근처에 'ICA MAXI'와 'WILLYS'라는 큰 마트가 있어서 장을 봐서 만들어 먹었고 시내에는 아시안마트가 있어 쌀, 김치, 라면, 고추장, 쌈장, 된장, 떡볶이 떡, 떡국 떡, 두부, 한국 과자 2~3종류, 김, 고추가루 등등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한번씩 한식을 해먹었습니다. 또한 학교 캠퍼스 안에 파스타, 인도요리 음식점, 피자, 햄버거 등등 다양한 식당이 있으며 가격은 70SEK정도로 한화 약 9000 정도 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좋아해서 대부분 요리를 해먹었으며 외국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한식을 좋아해서 잡채, 떡볶이, 불고기(정말 좋아합니다), 비빔밥, 삼계탕 등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스웨덴 음식, 서양 음식들을 친구들에게 배우면서 음식의 폭도 많이 늘었습니다. 마트에서 식자재 재료는 대부분 한국과 비슷하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저렴해서 자주 사 먹었습니다.</p>

교통	<p>기숙사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 위치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시내를 가려면 학교 앞 정류장에서 2,3,10번을 타고 갈 수 있으며 버스비는 1회 21SEK로 올랐습니다. 버스카드를 사서 충전식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기사에게 직접 구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앱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추천해드립니다. 1회 3시간 무제한 환승 가능하며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에는 SJ 스웨덴 기차를 이용하거나 FLIXBUS 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미리 예매하면 할수록 더 저렴하여 미리미리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 자전거로 이동을 하여 교통비에 많은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p>
----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한국-스웨덴(720,000원) 크로아티아-한국 (600,000원) 총 1,320,000 원	대한항공 (모스크바 경유) 폴란드항공 (폴란드 경유)
Fees	약 200,000 원	오리엔테이션 비용 X 2번 참여
보험료	약 500,000 원	해외 여행자 보험 사용 현대해상(보상 한도액이 높았음)
숙소	약 4,400,000 원	학기당 약 2,200,000원 (17,500SEK)
식비	약 2,700,000 원	한달에 약 300,000원
교통비	약 100,000 원	1회 2,800 원
책값		E-BOOK, 도서관에서 대여
기타1	약 4,000,000 원	개인 여행
기타2	약 1,000,000 원	개인 쇼핑 비용

합계		
----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스웨덴 교환학생시 거주허가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입학허가서가 나오는 즉시 거주허가증 발급 신청부터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출국 전에 여유롭게 해결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교환학생이라면 기숙사 사용은 100% 가능하며, 학교 홈페이지에 기숙사에 대한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꼭 정독 후 선택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RED HOUSE를 추천 드립니다.

스웨덴은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다소 비싼 나라입니다. 인건비가 비싼 이유인데요 사람의 손길 즉, 서비스가 들어간 모든 것은 다소 비쌉니다. 하지만 공산품 등 식재료들은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저렴한 것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처에 아시아 마트가 있어 기본적인 한국 제품과 일본, 중국 제품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고추가루, 김치, 깍두기, 한국 과자 2~3종, 라면 4~5종, 고추장, 쌈장, 된장, 춘장, 굴소스, 김, 교자만두, 쌀, 두부 등)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는 않지만 카레, 제육볶음, 김치볶음밥, 짜장면, 우동 등은 음식 솜씨만 있다면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일반밥술 파는 곳이 있으니 구매하셔서 마트에서 생쌀로 밥 해먹으면 됩니다.

저는 스웨덴 교환학생 가기 전 언어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스웨덴 교환학생 비율이 낮다 보니 교환학생 수기도 적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도 정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선 스웨덴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국가 중 영어 잘하는 나라 !~2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결과 정말 영어 잘합니다. 당연히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잘하며 교환학생 수업 모든 것이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예외도 있다고 합니다, 수강신청 전 확인 필수) 저 또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교환학생을 도전하는 거였기에 언어적인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른 것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려도 대부분 대학생들은 영어 모국어 수준으로 잘하며 부족하면 제가 부족했지 영어 때문에 답답했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스웨덴이기 때문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식재료 이름은 스웨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처 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며 스웨덴어 때문에 생활에 불편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생활적은 부분은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거나 쓸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 나라에 맞게 필요한 것들 다 있습니다. 다만 추위를 많이 타시거나 한식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면 준비해서 가는걸 추천 드립니다. 저는 그냥 거기에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택배비나 거기서 중고로 싸게 사는거랑 가격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첫 주에 이케아 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이불부터 다 이케아에서 샀습니다. 저렴하고 1년동안 잘 쓰고 되팔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환학생을 준비하러 하면 이 3가지는 꼭 준비할

것 같습니다. 첫째, 영어 둘째, 팝송 셋째, 영어 관련된 문화 (드라마, 영화, 조크). 영어는 최대한 연습 많이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나름 5개월동안 서울에서 회화 학원을 다니며 혼자 미드도 보고 연습을 많이 해서 갔지만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3개월 이후 영어가 막 향상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덜 느껴졌습니다. 영어 회화는 최대한 많이 연습하시고 오세요. 두번째는 팝송입니다. 제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k-pop도 잘 안 듣고 음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들 이랑 놀 때, 퀴즈를 풀 때, 클럽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놀 때 팝송을 잘 모르는 저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팝송에 대해 많이 듣고 가능하시다면 팝송 문화, 요즘 유행하고 유명한 노래 가사 정도는 외워서 가는걸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영어 관련된 문화입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영어 실력이 아무리 늘어도 문화를 모른다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드나 왕자의 게임, 영어로 된 조크를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스웨덴에 갔습니다. 완전 친해지기 전에는 서로 취미, 자기 나라 소개,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간다면 점점 친해질수록 문화에 관련된 대화를 참 많이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하이 스쿨 뮤지컬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처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미드나 유명하고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물론 영어 듣기 말하기 공부도 자연스럽게 돼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에 선발되고, 미리 다녀왔던 선후배, 친구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4학년 1학기 2학기를 보내고 오는 것이었기에 상대적으로 늦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한국에서 자격증 공부, 대외활동 등 다양한 취업준비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미 합격한 이후에도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시간이 날때마다 여행을 가고 싶어 교환학생 합격 후 6개월동안 알바를 해서 목돈을 모아 갔습니다. 목돈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다녀온 저는 무조건 도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평생 하지 못할 엄청난 경험을 다 하고 왔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재밌게 다녀왔고 즐기고 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 1년 동안 힘들었던 시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들을 이겨내면서 내적인 성장도 많이 했고 제가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소심하고 앞에 나서는 성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 곳에서 저는 제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남들보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축구, 배구 대표로 나가 우승도 하고 헬스도 꾸준히 해서 헬스장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습니다. 음식, 몸치지만 남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

언어적인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언어적인 부분도 많이 늘어서 왔습니다. 모국어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자막없이 영화, 드라마를 보며 내용 이해가 가능하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능력 향상 또한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기에 단기간에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을 가기전에 많이 범하는 오류가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 영어가 금방 늘꺼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보여주고 내 자신에 대해 먼저 오픈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길 것이고 1년후 영어 실력 또한 자연스럽게 늘 것입니다. 사실 저도 친한 영국인 친구가 막학기 과정이 끝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항상 적극적이고 웃으면서 잘 참여하길래 '나'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는 운동하고 프리미어리그 축구 보면서 공통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여행도 같이 다니고 진짜 친해진 것 같다." 그리고 영어 실력도 처음에 비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 거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변화하였고 언어적인 부분 또한 따라왔습니다. 진짜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정말 감사하고 뜻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난 후 시간이 날때마다 여행을 갔습니다. 근처 캠핑도 갔으며 아프리카 모로코 사하라 사막에 친구와 차를 렌트하여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엔 영국 친구가 초대해서 친구 가족들과 밥도 먹었고 부활전에는 독일

친구가 초대해서 친구 대가족들과 전통 체험도 같이 했습니다. 학기가 끝난 후 덴마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친구들이 초대해주어서 친구들과 현지인처럼 놀기도 하고 재미있게 여행도 하였습니다. 1년이란 시간동안 언어, 문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으며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동안 항상 주변에서 도움만 받고 베풀지는 못하고 돌아와 너무 아쉬웠습니다. 스웨덴 Orebro University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유럽, 미국 교환학생을 도전하는 학우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정리했습니다. 글이 어수선하고 앞뒤가 맞지 않지만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국제교류처 선생님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순천향대학교 감사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Lapland에 친구들과 여행가서 직접 찍은 오로라 사진입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오로라 2



친구들과 학교 뒷산에서 바비큐 파티



레드 하우스 숙소사 외관



친구들과 코펜하겐 여행



코펜하겐 여행 2



생일파티



친구들과 생일파티





친구들과 오스트리아 여행



친구들과 외레브로 펍에서



같이 동거동락했던 가족 같은 친구들



가족 같은 친구들



친구들과 파티



Farewell Dinner 우승



독일 친구와 친구 사촌들과 부활절



영국 친구와 아프리카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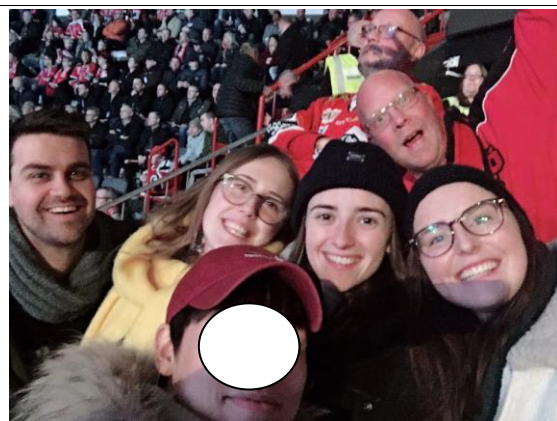




미국 친구, 벨기에 친구와 스키 여행



독일 친구와 친구들 앞에서 팝송 부르기



친구들과 아이스하키 응원!



폴란드 프랑스 친구들과 스톡홀름 여행



친구와 장보다 장난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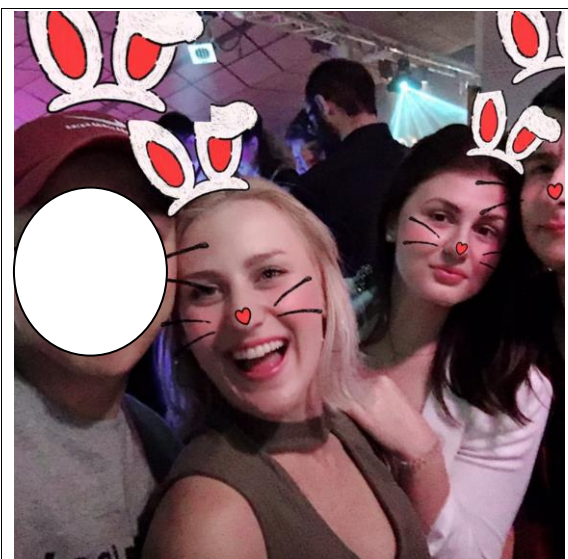
배구 우승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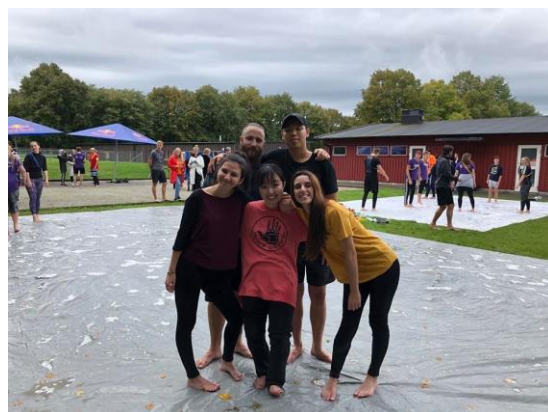
친구들과 밤새동안 커피 마시며 수다



친구들과 펍에서



친구와 클럽에서



비오는날 비누 축구



첫번째 기숙사 Studentgatan



Studentgatan 침대 옆 책상